

“대선 판도 좌우” 해리스·트럼프 첫 TV토론 준비 분주

해리스, 바이든과 공동유세 이어 정책 다듬기... 경제공약 발표 트럼프 ‘해리스 때리기’ 집중...경합주 유세 등 공개 행보 예고

미국 대선후보 첫 TV 토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이 토론에 대비하면서도 유세 등 바쁜 선거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TV 토론은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이번 대선의 향후 판도를 좌우할 중대한 이벤트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에서 이미 입증됐듯 토론에서 두 후보의 격돌 결과에 따라 승부가 사실상 결정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토론까지 남은 일주일일 두 후보에게는 자신의 토론 의제를 기다리는 기회인 동시에 상대방에게 어떤 공격을 퍼부을지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두 후보는 바쁜 와중에 알찬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분주하고 있다.

CNN 방송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 10일 열리는 대선후보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말 TV토론에서 참배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순식간에 대권 주자가 된 해리스 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 모멘텀을 타는 중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진했던 지지율을 끌어 올리면서 정권 재창출 희망에 대한 당내 분위기도 바꿔놓았다.

이번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대열에도 직접 가세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당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두고 ‘정치 행위 논란’이 일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 이목을 끌기 위해 성스러운 장소를 모독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내세웠던 각종 이슈와 관련한 입장을 조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언론에서 향후 이런 대목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최대 쟁점으로 예상되는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도 가다듬고 있다.

그는 미국 노동절인 2일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공동유세를 펼치면서 미국 내 ‘중산층 재건’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워 유권자 표심을 공략했다.

앞서 그는 가격 폭등 억제, 식품품 비용 완화, 중산층을 위한 세금 인하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4일에는 뉴햄프셔를 찾아 경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연설을 통해 혁신과 기업가 정신,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예정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더 집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후 재집권을 눈앞에 두는 듯하며 기세를 올리자 한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날 선 공격을 자제하고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물러나고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후보로 선출된 뒤 해리스 부통령에게 추격을 당한 것을 넘어 추월까지 허용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인도계이자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인종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성

(性)적 거래를 통해 정치적으로 발돋움한 것처럼 시사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전망이다.

자신의 지지층이 사실상 총결집한 상태에서 외연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 비방을 통해 상대방의 지지세를 약화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노동절을 특별한 일정 없이 건너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전까지 나름 뻑뻑한 공개 행보를 예고했다.

4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유대인 연합의 연례 리더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5일에는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주말인 7일에는 러스트벨트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모시니에서 유세를 연다.

이번 TV 토론은 이번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ABC방송 주최로 열린다. /연합뉴스

“인질 살해” vs “궤멸 완수” 가자전쟁 더 잔혹해지나

하마스 ‘군 접근 때 죽여라’ 지침 협상력 약화 감수하고 ‘이판사판’ 군사작전 저해 등 심리전 일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의 전쟁이 인질을 둘러싼 더 잔혹한 국면에 들어설 조짐이다.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의 살해를 전쟁 전략의 일부로 공식화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타협 여지를 내비치지 않은 채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하마스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때 납치한 인질들에 대한 관리 지침을 수정했다.

하마스 대변인은 최근 인질 6명의 사망 경위를 설명하며 올해 6월 관리 지침이 바뀌었다며 해당 인질들은 이스라엘군 접근 때문에 살해됐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스라엘군이 구출을 시도하면 인질을 죽인다는 게 하마스의 새 지침이라고 해석한다.

하마스는 올해 6월 이스라엘 부대의 특수작전으로 인질 4명을 빼앗긴 뒤 지침을 강경하게 변경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패배의 재발을 막으려는 듯 하마스는 최근 인질 6명 살해에 따른 이스라엘 내 충격파를 부채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마스는 인질들이 죽기 전 촬영된 동영상을 잇달아 배포하며 네타냐후 정권의 군사작전 실패를 주장했다.

인질 가운데 하나인 오리 다니노(25)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구출 시도 실패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이스라엘 여론을 움직여 네타냐후 정권의 강경한 군사작전을 저해할 목적으로 강요된 심리전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가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이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에 즉각적인 휴전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일부 전문가들은 궤멸 위기에 몰린 하마스가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생존을 궁극적 목표로 삼게 된 하마스가 인질이 줄어들어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양날의 칼’을 이판사판으로 집어 들었다는 것이다.

하마스에 정통한 정치분석가인 이브라힘 알마드혼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인질이 많이 죽으면 하마스의 카드가 약해질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그래도 하마스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심리전, 인질살해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하마스 전면해체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

현재 하마스가 가지지구 내 곳곳에 나눠 억류하고 있는 인질은 64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가 작년 10월 끌고 간 인질 251명 중에 117명이 협상을 통해 풀려나거나 구출됐고 나머지 인질 중 7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

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인질 억류를 더는 휴전협상 지렛대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경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싱크탱크 위기그룹의 팔레스타인 선임 분석가인 타하니 무스타파는 CNN방송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협상) 방정식에서 인질 의제를 뺐다”며 “현재 이스라엘 정권이 어떤 종류의 인질석방에도 관심이 없다는 점을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휴대폰 도난 막아줘

영국, 제조사에 대책 요구 폰 도난 하루 백 건 넘어

영국에서 휴대전화 납치기가 급증하자 영국 정부가 제조사와 정보기술(IT) 업체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BBC 방송과 일간 텔레그래프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무부가 이날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거리에서 벌어진 전화 또는 가방 납치기 사건은 7만8000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213건꼴로, 전년보다 150% 이상 많고 이전 10년간 연평균보다도 60% 많은 것이다.

납치기와 몰래 빼내기를 포함한 개인 대상 절도는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 13만 건이었는데, 그 중 3분의 1은 휴대전화 도난과 관련됐다.

내무부는 영국과 해외 중고 휴대전화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가 휴대전화 절도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테크 업체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을 불러 회의를 개최, 도난 전화의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이애나 존슨 내무부 경찰소방 담당 부장관은 “전화 회사들은 도난 전화가 중고 시장 판매용으로 재등록되지 않고 빠르고 쉽게,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들을 조만간 만나 필요한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